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강릉 정박한 선박서 1조 원어치 코카인 2톤 적발...‘역대 최대’



세관 당국과 해양경찰이 국내 정박한 외국 선박에서 밀수된 것으로 의심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을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선박에서 마약을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동해해경청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벌크선인 A호(3만2천급·승선원 외국인 20명)가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미국 FBI의 정보를 입수하고 해경과 세관 90여 명을 동원해 옥계항에 입항한 A호를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선적지가 노르웨이인 A호는 멕시코에서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거쳐 국내로 입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과 세관은 선박 내부 특수 밀실 등 선박 전반을 집중적으로 수색한 결과 해당 선박 기관실 창고에서 코카인(Cocaine) 의심 물질을 다량 발견했다.

합동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에 마련된 밀실 내부를 집중 수색해 1kg 단위의 코카인 클록 수십 개가 들어있는 박스 57개를 발견했다. 중량은 2톤, 시가 1조 원 상당으로 6천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동시에 쓰기도 남을 양이다.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적발한 마약은 다량의 코카인 의심 물질로 추정되며 국내에서 유통될 경우 사회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이다. 동해해경청과 서울본부세관은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원 등 20명을 대상으로 마약 출처 및 유통경로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물질을 의뢰해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은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고 미국 FBI와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광호 관세청장은 “최근 미국·캐나다 국경 강화 조치로 국제마약조직이 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 한다는 첩보가 있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해외 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찌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예레미야 36:23)

하나님, 전 세계를 뒤덮은 마약의 그림자가 어느덧 대한민국 땅에 깊이 뻗친 이 참담한 상황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으로 한국과 열방의 영혼을 더럽히고 사망으로 이끌면서까지 이익을 추구하려는 모든 마약 범죄자들을 드러내 주시고 꾸짖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이러한 위기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지키는 증인이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한국이 열방 가운데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 아프리카 민주콩고 폭우로 수십 명 사망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 며칠간 이어진 폭우로 수십 명이 숨졌다고 주요 외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동부에서 시작된 내전이 킌사사까지 확산하는 상황에 홍수까지 덮치면서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게 됐다. 수도 킌사사 지방정부 관계자는 사망자를 30여 명으로 집계했지만, 사망자 수가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부는 익사했지만, 사망자 대부분은 무너진 건물 벽에 깔리면서 발생했다고 보건당국 관계자가 설명했다. 지난 4일부터 민주콩고 일대에 비가 이어진 탓에 킌사사를 지나는 콩고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홍수가 났고 이재민이 다수 발생했다. 킌사사 인근의 한 마을에서는 저지대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긴 바람에 주민들이 뗏목을 타거나 수영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콩고강은 아프리카에서 나일강 다음으로 길며, 유역 강수량이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일 정도로 많아 홍수가 자주 발생한다. 2022년 킌사사 홍수 때는 최소 100명이 숨졌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편 121:1-2)

하나님, 민주콩고의 내전이 수도 킌사사까지 확산하는 상황에 홍수까지 덮쳐 고통이 더해가는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여, 속히 내전이 종식되게 하시고 홍수로 위험에 처한 자들이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에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이들을 도우실 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밖에 없사오니, 은혜의 복음을 계시하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민주콩고 영혼들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자시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 100여 곳 추정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축출된 뒤에도 화학무기 시설이 아직도 100개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 뉴스가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6일 보도했다. 국제 화학무기 감시단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따르면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에도 시리아 전역에는 100곳이 넘는 곳에 화학무기의 연구·제조·보관시설이 있으며, 일부 시설은 정찰 위성으로도 파악하기 어려운 동굴이나 외딴곳에 은폐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드 정권은 13년간 내전을 치르면서 정적과 반대파, 시민들에게 사린가스와 염소가스 등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한 반군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샤ם(HTS-레반트해방기구)이 아사드를 축출하고 새 정권을 수립한 뒤에도 내정 불안이 이어지면서 무장세력의 손에 이 화학무기 시설들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리아의 새 정부는 OPCW와 협력해 잔존 화학무기 시설을 찾아내 모두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밝혀왔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시편 46:9-10)

하나님, 인간에게 치명적인 화학무기 시설이 아직 폐기되지 않아 또다시 이를 악용할 우려를 낳고 있는 시리아를 주께 위탁드립니다. 주님, 무기를 든 모든 자들의 활을 꺾고 창을 끊어 주시고, 사람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들을 파하여 주소서. 멈추지 않는 분쟁 속에서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세워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최초 복음주의 대학교 개교



아르헨티나에서 최초로 복음주의 대학교인 남미복음주의대학교(Universidad Evangélica del Cono Sur)가 3월 22일 개교했다고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이 보도했다. 개교식은 현지 교회인 ‘믿음의 대성전’ 교회에서 진행됐으며, 정치·교육·종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대학 설립을 축하했다.

마테오 총장은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정직하게 섬기고, 진리를 추구하며,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젝트가 국가적 교육 및 영적 필요에 대한 비전 있는 응답임을 강조하며, 특히 노동계층 공동체를 위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대학 설립을 주도한 카니발 목사는 이 대학이 학문적 우수성과 기독교적 가치를 결합할 것이며, 소명과 신앙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교가 단지 한 기관의 시작을 넘어 신앙과 학문이 함께 가는 새로운 교육 모델의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남미복음주의대학교는 3개의 3년제 학사 과정을 운영한다. 신학, 기술 경영, 영상 콘텐츠 기획 및 경영 분야로, 모두 교육부의 공식 인가를 받은 국가 공인 학위 과정이다. 또한 대학은 영어 교육, 문화 워크숍 웹 개발, 로봇공학 및 프로그래밍, 보안 및 커뮤니티 관리, 심리 치료 동반 교육 등 다양한 실무 중심의 단기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대학은 학생들의 개인적, 직업적,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목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교수진과 학생들 간의 긴밀한 유대 속에서 신앙과 학문을 조화롭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개교는 전체 인구의 약 15.3%를 차지하는 복음주의 공동체에 큰 의미를 갖는다. 복음주의 정체성을 반영한 고등교육 기관의 설립은 신앙과 전문성의 조화를 이룬 새로운 교육 대안을 제시하며, 교회의 제도적 영향력을 한층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남미복음주의대학교의 출범으로 아르헨티나는 복음주의 정체성을 가진 고등 교육 기관을 설립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대열에 합류하며 남미 지역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됐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데살로니가전서 2:6)

하나님, 아르헨티나 최초의 복음주의 대학교의 개교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복음을 위탁 받은 자들이 다양한 영역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길 간구합니다. 아르헨티나 교회 안에 학교를 향한 다양한 기대가 있지만 무엇보다 각 사람을 예수교회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남미와 열방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주목하며 기도로 중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을 전부로 드리는 선교 완성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 제주도, 중국인 범죄 급증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중국인 범죄가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4일 보도했다. 3일 제주경찰청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 관광객은 8만 명에서 2023년 70만 명, 2024년 190만 명으로 폭증했다. 2024년 외국인 관광객 중 72.6%인 138만 명이 중국인이다. 2024년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608명(잠정치)으로, 그중 412명(67%)이 중국인이다. 특히 강력 범죄가 잇따라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24일 제주시 노형동 한 특급호텔에서는 중국인 3명이 가상자산을 사러 온 중국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8,500만여 원을 훔쳤다. 1월에는 제주시 연동에서 30대 중국인이 전 연인을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사찰에서 유골함을 절도해 되찾으려면 200만 달러를 요구한 사건도 있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강력범죄 집중 검거와 무질서 행위 근절을 목표로 지난달 23일부터 100일 특별 치안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주님께서 시온에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이사야 59:9,20, 새번역)

하나님, 제주도에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중국인 범죄가 늘어나 특별 치안 기간을 운영할 만큼 흉흉한 곳이 되어버린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이익과 탐심을 채우려는 범죄자들을 꾸짖어 주시고 이로 인해 원주민들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복음과 기도로 제주도에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는 교회가 이때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님을 더욱 외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둠 속을 헤매는 영혼들이 빛 되신 주님을 만나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 영국 기독교 여성, 낙태 클리닉 앞 ‘대화 제안’ 표지판 들었다가 유죄 판결

영국의 한 기독교 여성이 낙태 클리닉 완충지대에서 “원하신다면 대화할 수 있어요”(Here to talk, if you want)라는 표지판을 들고 있었던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비아 토시치-볼트(64) 박사는 본머스에서 위치한 낙태 클리닉 인근에서 고정 벌금 통지서를 거부한 뒤 기소됐으며, 풀 치안판사 법원은 그녀에게 조건부 방면형과 함께 2만 5,800달러(한화 약 3,770만 원)의 검찰비용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토시치-볼트 박사는 자신이 시위를 하거나 방해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단지 공공장소에서 자발적인 대화를 제안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표현의 자유는 위기에 처했다”며, 이번 판결이 영국뿐 아니라 서방 전체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이사야 1:4,27)

하나님, 생명을 존중하는 한 여성의 믿음의 행보가 세상에서는 범법이 되어버린 영국의 참담한 소식에 마음을 찢으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홀히 여기며 멀리 떠나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책망하여 주시고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자신의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소서. 이러한 제도적 박해 속에서도 영국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구원에 있음을 외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돌아온 자들이 공의로 구속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바르셀로나, 도시개발 계획으로 교회 17곳 폐쇄 위기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 도시 개발 계획으로 최소 17개의 복음주의 교회가 폐쇄 위기에 놓였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 장소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에반젤리컬 포커스가 최근 보도했다. 일부 교회는 이미 지방 당국으로부터 폐쇄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다른 교회들은 최근 카탈루냐 복음주의 협의회(CEC) 주최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전달받았다.

CEC는 이번 조치로 인해 “수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 장소를 잃을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산트 안드레우(Sant Andreu) 지역은 기존 산업지구로, 이 지역에 위치한 많은 교회는 창고나 상업용 건물을 개조해 예배 장소로 사용해왔다. 이들 중 일부는 교회가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임대 건물이다.

바르셀로나 시는 해당 교회들이 위치한 지역이 산업 용도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예배 시설 운영이 도시계획법상 불법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법상 산업 지역에서는 예배 활동이 허가되지 않으며, 예배 장소 다수가 정식 활동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의 교회 시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들은 2024년 10월까지 관련 통보를 받은 상태다. CEC는 각 교회에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교회의 권리를 지키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CEC는 각 교회를 법적·목회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사안을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코레아 사무총장은 “일주일 내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종교의 자유도, 공동체 생활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EC는 이번 사안을 전례 없는 비상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바르셀로나 시가 이에 상응하는 비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시는 대부분의 교회에 이전 제안을 했으나, CEC는 각 교회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기예름 코레아 CEC 사무총장은 “현재 많은 교회들이 금식하며 기도 중이며, 최선의 길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바르셀로나 시는 종교업무국을 통해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며, 이들이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흠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예레미야 17:13-14)

하나님, 도시개발 계획으로 많은 복음주의 교회가 폐쇄 위기에 놓여 수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 처소를 잃을 수 있는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화려한 도시를 꾸꾸지만, 주를 버리는 자의 결국이 수치와 멸망임을 깨달아 위정자들이 교회를 위한 정책을 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곳 백성들이 주를 만나는 구원의 기회를 얻게 하소서. 위기처럼 보이는 이때 성도들이 오히려 눈을 들어 주를 주목하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진리를 굳게 붙드는 예수 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중국, 5월 1일부터 외국인 선교 활동 전면 금지

중국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외국인의 선교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는 새로운 종교 규제를 최근 발표했다. 국제크리스천컨선(ICC)에 따르면, 중국 관영 매체는 이러한 규제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정상적인 활동이란 정부의 엄격한 관리 아래 운영되는 국가 등록 종교 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당국은 종교적 충성심이 공산당에 대한 절대 충성심과 충돌할 수 있다고 보고, 등록되지 않은 교회나 종교 모임을 '사이비', '극단주의'로 규정해왔다.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가정교회들은 지속적으로 탄압을 받으며, 공안은 이들 교회를 급습하고, 성도들을 국가의 이익을 해친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중국 공안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위챗(WeChat)을 통해 독립 종교 단체 단속을 위해 기술 및 인력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감시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부터 사회적 관계까지 추적하며 공산당의 충성도를 분석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정부가 국가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인물들, 특히 등록되지 않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8-9)

하나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건만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며 성도들을 박해하는 중국 당국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제는 외국인 선교 활동까지 전면 금하며 자기의 육체와 헛된 영광을 위하여 악을 심는 모든 계략이 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중국 교회에 더욱 힘을 주셔서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는 하늘 백성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인내로 인하여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땅이 주의 평강과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 나이지리아 플라니 무장세력, 토지 강탈 위해 기독교인 60명 집단 학살

나이지리아 플레토주 보코스 지역에서 지난 4월 2일과 3일, 이슬람 플라니 무장세력에 의해 최소 6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잔혹하게 살해됐다고 모닝스타뉴스가 8일 보도했다. 플레토주 주지사 케일럽 무트팜은 이번 사태를 "명백한 집단학살"로 규정했다. 이번 공격은 보코스 지역의 루위, 망고르, 타미소, 다포, 망구나, 후르티, 타다이 등 7개의 기독교 마을을 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지역 지도자 마렌 아라도웅은 "후르티 마을에서만 40명 이상 사망했으며, 1,0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피난했고 383채의 가옥이 파괴됐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4월 4일 성명을 통해 "플레토주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대량 학살은 정부의 무대응이 문제"라며, 지난 3개월 동안 플레토주에서 최소 1,336명이 살해됐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정부는 주민들의 긴급 구조 요청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베드로전서 4:14,16)

하나님, 나이지리아에서 또다시 들려오는 많은 성도들의 순교 소식에 더욱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옵니다. 무장세력과 정부의 무대응 등으로 주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는 사탄의 악한 권세를 파하여 주소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나이지리아 교회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이 이들에게 복이 되어 더욱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입성하게 될 하늘 본향이 더욱 소망 되게 하소서.